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테이퍼링 가속화 및 금리인상을 주장
 - 미국 양당, 연방정부 섯다운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2월 중순까지) 예산 자급에 합의
 - ECB 이사, 역내 경제회복은 불완전. 고물가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등이 리스크
 - OPEC+, 기존의 감산 완화 계획을 유지. 다만 필요할 경우 공급량 조정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
주가 상승[+1.4%],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최근 하락 등으로 저가매수 유입
유로 Stoxx600 지수는 오미크론 방지를 위한 봉쇄 강화 등으로 1.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긍정적인 11월 고용보고서 전망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2%,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위험자산 선호 등이 반영
독일은 오미크론 불안 등이 지속되면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77.5원, +1.0원) 0.1% 상승, 한국 CDS 상승

		12/2일	12/1일	전일대비			12/2일	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77.1	4,513.0	1.42%	국채 금리 10y	미국	1.44%	1.40%	4bp
	유럽	465.44	470.86	-1.15%		독일	-0.37%	-0.34%	-3bp
	중국	3,573.8	3,576.9	-0.09%	CDS 5y	한국	21bp	20bp	1bp
	일본	27,753	27,936	-0.65%		중국	54bp	54bp	0bp
	한국	2,945.3	2,899.7	1.57%	위험 지표	EMBI+	-	408	-
환율	달러지수	96.13	96.03	0.11%		VIX	27.95	31.12	-10.19%
	유로화	1.1301	1.1320	-0.17%		WTI유	66.50	65.57	1.42%
	엔화	113.11	112.78	-0.29%	원자재	구리	429.4	424.8	1.08%
	위안화	6.3771	6.3681	-0.14%		금	1,768.7	1,781.7	-0.73%
	원화	1,175.9	1,179.2	0.2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테이퍼링 가속화 및 금리인상을 주장

- 웰스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상회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시장에서 6월로 예상하는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 또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리인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부연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하락하지 않으면, 테이퍼링을 내년 3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발언. 금리인상도 내년 2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금리경로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 역시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인상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점도표에서 연준 인사들은 2022년 1회 이상의 금리인상을 예고할 수 있다고 첨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양당, 연방정부 섯다운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2월 중순까지) 예산 지급에 합의

- 연방정부가 2월 중순까지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관계자들은 이르면 12/2일(현지시각) 저녁 하원에서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
-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승인이 예상되나, 일부 공화당 의원은 정부의 백신 의무화 추진에 반발하면서 이번 법안의 승인을 거부.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2/4일(토) 섯다운 상황에 직면

■ 미국 재무장관, 오미크론은 세계경제 회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

- 엘런 재무장관은 오미크론이 공급 차질 심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동시에 수요 감소를 유도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 현 상황에서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 ECB 이사, 역내 경제회복은 불완전. 고물가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등이 리스크

- 파네타 이사는 공급 측 문제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새로운 코로나 변이 출현에 따른 감염 확산 등이 유로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

■ 미국 1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예상치 하회. 노동시장 개선이 지속

- 해당 건수는 22.2만건으로 예상치(24만건) 하회.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전주(19.4만건) 대비 증가했지만, 이는 연말 연휴시기에 흔히 발생하는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 JP모건, 오미크론 사태는 팬데믹 종식을 앞당길 가능성. 증시에서 저가 매수 유호

- Marko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역사적으로 바이러스는 변이가 증가할수록 치명률이 하락했다고 언급. 이번 사태로 경기민감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

■ 중국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 2022년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을 권고

-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중국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자문위원은 경제 역풍을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특히 한 위원은 내년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 OPEC+, 기존의 감산 완화 계획을 유지. 다만 필요할 경우 공급량 조정 가능

- OPEC과 주요 산유국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에 일일 40만배럴 증산에 나설 방침. 하지만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수요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전략 비축유 방출에 따른 여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피력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1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

- FAO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134.4로 전월(132.8) 대비 올랐고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27.3% 상승. 이번 결과는 곡물의 수확량 부족과 강력한 수요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12/2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0월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21.9%, 9월(16.1%), 예상치(19%)

■ 주요 경제 이벤트(1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10월 제조업 수주, 11월 ISM 서비스경기지수
- 미국 및 유로존 11월 마켓 종합 PMI,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오미크론 영향과 관계없이 강세 기조를 유지할 전망 - WSJ

(Whether Omicron Wreaks Havoc or Not, the U.S. Dollar Is a Buy)

- 오미크론이 미국 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회복 저해는 안전자산인 달러화 매수 요인. 또한 공급 차질 심화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통화긴축 가속화를 유도할 소지
- 한편 영란은행의 공격적 긴축은 정책 오류로 판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은 여전히 비둘기파적(dovish) 행보와 소극적 재정정책을 유지. 이는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를 초래하면서,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
- 만일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금리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달러화 강세 여건을 조성

■ 세계 주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제어가 우선 과제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do not have the luxury of time in tackling inflation)

- 최근 경제성장과 고물가 경로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미크론이 수요와 물가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에는 시간이 요구.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마련할 필요
- 오미크론의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면 공급병목 심화와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불가피. 반면 소비활동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 가능성도 상존. 연준과 ECB 등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부양책보다는 출구전략을 더 모색할 전망

■ 중국의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제품 가격 상승, 미국 물가상승 압력을 증폭 - 블룸버그

(China's Role In U.S. Inflation Won't Be Transitory)

■ 낮은 수준의 미국 국채금리, 연준의 비둘기파적 성향과 경제 약점을 반영 - WSJ

(Bond Investors Bet on Low Peak Interest Rates)

■ 외국인의 중국 투자,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 증가에 유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China's rising vulnerability to foreign investor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